

Antonín Dvořák

국립합창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Anton Bruckner

DEUM

TE

Edward Elgar

2025.4.15.TUE 19:30 롯데콘서트홀

주최: 국립합창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명선아트홀

EDEN PARADISE



안녕하십니까, 국립합창단 이사장 이상현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제201회 정기연주회 <테 데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며, 시대와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보편적인 예술입니다. 특히 합창은 개별적인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울림으로 완성되는 예술로, 우리에게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국립합창단은 오랜 시간 이러한 예술의 순수성과 깊이를 지켜오며, 한국 합창음악의 정체성과 미래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르는 <테 데움>은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작곡가들이 영감을 받아 온 고대의 찬가로, 경외와 감사,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은 이 숭고한 메시지를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적 정교함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해석과 감동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 단지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 속의 인간다움에 대해 되새겨 보는 깊은 사유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악이 선사하는 깊은 울림과 지혜의 성찰을 통해 삶의 숨결을 돌아보는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립합창단은 앞으로도 품격 있는 무대를 통해 한국 합창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공공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다리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무대를 수놓을 찬란한 하모니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울림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 이사장 **이상현** 이 상 현



안녕하십니까,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입니다.

남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첫 번째 시리즈로 선보이는 제201회 정기연주회 <테 데움>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테 데움>은 ‘하느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라는 뜻으로 중세 시대부터 오랜 음악적 역사를 지닌 장르의 합창 음악입니다. <테 데움>의 가사는 모두 29절의 산문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수세기 동안 많은 작곡가들에게 신앙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게 했습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드보르작, 엘가, 브루크너의 세 작품은 모두 같은 내용의 가사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각자의 언어로 전혀 다른 감정을 들려줍니다.

브루크너는 장대한 구성 안에 신앙의 확신을 담았고, 엘가는 절제된 화성과 조용한 사유를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드보르작은 생명력 넘치는 선율과 함께 고유의 정서를 불어넣었습니다. 세 개의 작품은 단지 시대를 달리한 작곡가의 곡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만나 하나의 음악을 새롭게 빚어낸 예술적 산물입니다.

국립합창단은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음악의 본질을 성실히 탐구하고자 늘 노력해왔습니다. 고전의 품격과 오늘의 감각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음악이 여러분 각자의 시간과 마음 속에 저마다의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무대를 위해 마음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립합창단 직·단원 및 모든 출연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국립합창단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 민 인 기

# TE DEUM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가사] ▶



## 1부

### Antonín Dvořák: Te Deum

안토닌 드보르작: 테 데움

- I. Te Deum laudamus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II. Tu rex gloriae 영광의 왕이신 당신이여
- III. Aeterna fac 영원한 삶을 주소서
- IV. Dignare Domine 존귀하신 당신

소프라노 김방술 · 바리톤 안대현

## 2부

### Edward Elgar: Te Deum and Benedictus

에드워드 엘가: 테 데움과 베네딕투스 \*국대초연

- I. Te Deum laudamus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II. Benedictus 복을 받을지어다

오르간 양하영

## 3부

### Anton Bruckner: Te Deum

안톤 브루크너: 테 데움

- I. Te Deum laudamus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II. Te ergo quaesumus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 III. Aeterna fac 영원한 삶을 주소서
- IV. Salvum fac 백성들을 구주소서
- V. In te, Domine speravi 당신께 원하나이다

소프라노 임세경 ·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국윤중 · 바리톤 양준모 · 오르간 양하영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E DEUM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 곡 해설

오늘 공연은 “당신을 찬미하나이다”라고 시작하는 라틴어 찬송시 ‘테 데움’을 세 명의 작곡가의 음악으로 듣는 시간이다. 4세기에 정리된 ‘암브로시오 성가’에 기록된 이 찬송시는 신에 대한 찬미와 신앙고백, 구원의 간구를 노래한다. 그런데 9~10세기에 정리된 그레고리오 성가에는 믿음의 고백과 탄원을 노래하는 시편 구절들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후 ‘테 데움’은 이 형태로 음악이 붙여졌다. 특히 샤르팡티에의 <테 데움>의 서주 부분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브루크너의 <테 데움>은 ‘테 데움’의 대표 성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안톤 브루크너: 테 데움

Anton Bruckner: Te Deum, WAB 45

바그너를 흠모했던 안톤 브루크너(1824-96)는 브람스가 활동하는 빈에서 고통의 날들을 보냈다. 특히 바그너를 대척하고 브람스를 옹호했던 에두아르트 한슬리크에 의해 처절하게 공격당했다. 그러다 1881년 2월 20일, <교향곡 4번 ‘낭만적’>이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면서 큰 찬사를 받았다. 빈에 진출한 지 13년 만에 느껴보는 성공의 기쁨! 브루크너는 몹시 감격했고, 신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테 데움>(1881/83-84)의 초안을 완성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박해자들이 나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완성은 아니었다. 우선 <교향곡 6번>을 마무리한 후, 곧바로 <교향곡 7번>을 착수하여 1883년 9월에 마쳤다. 브루크너는 새로운 교향곡을 완성했다는 기쁨으로 묵혀뒀던 <테 데움>을 다시 꺼내어 1884년 3월 7일에 탈고했다.

1885년 5월 2일 두 대의 피아노 반주 버전 초연은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1886년 1월 10일 한스 리히터가 지휘한 관현악 연주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루트비히 슈파이델은 “그 무엇도 더 강력할 수 없는 폭풍과 충동이 지나간 뒤에 하늘의 심연과 마음의 심연이 열린다.”라고 극찬했으며, 한슬리크조차도 “더욱 분명하고 통일성이 있어서 더욱

음악적인 논리를 지녔다”라고 호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공적인 초연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30회나 공연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함부르크 공연을 지휘했던 구스타프 말러는 자신의 악보에 “합창단과 독창자, 관현악단, 임의의 오르간을 위하여”라는 말을 지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천사의 말, 신을 찾는 자, 순결한 마음, 그리고 불로 정화된 영혼을 위하여!”

<테 데움>의 선율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한 것이며, 옛 교회선법도 사용하고 있고, 바로크 시대의 푸가는 물론, 교향곡에서 들려주었던 중후한 화음도 들려준다. 이렇게 이 곡에는 1000년의 음악사가 투영되어있다. 그리고 통일성과 논리성의 핵심이 되는 반복되는 음형은 곡의 시작과 함께 강렬하게 들린다. 완전4도(도-솔)와 완전1도(솔-솔), 완전5도(솔-도)가 결합한 하강 음형은 신의 완전성을 상징하면서도, 3화음에서 중간음이 없는 구조여서 조성의 변화가 자유롭고 극적인 표현이 자연스럽다.

**1악장**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모든 현악기가 도-솔-솔-도의 하강 음형을 연주한다. 합창도 모든 파트가 같은 음으로 노래하여 거부할 수 없는 압도함을 들려주고, 팀파니의 트레몰로로 웅장함을 강조한다. 이어서 소프라노, 테너, 알토가 푸가로 노래하고, 합창이 ‘거룩’을





### 에드워드 엘가: 테 데움과 베네딕투스 Edward Elgar: Te Deum and Benedictus, Op. 34

<사랑의 인사>(1888)로 유명한 영국의 거장 에드워드 엘가(1857~1934)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젊은 시절에 진출한 런던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는 1891년에 런던을 떠나 아내의 고향인 말번에 정착하여 지역에 필요한 노래와 합창을 작곡하며 살아갔다. <테 데움과 베네딕투스>(1897)는 이 시기의 작품으로, 'Three Choirs Festival'의 개최식을 위한 헤리퍼드 대성당 오르간 연주자 조지 싱클레어의 위촉으로 작곡되었다. 이 곡은 16세기에 영국 국교회 예배를 위해 간행된 '일반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에 수록된 영어 번역을 가사로 사용한다. 길고 위풍당당한 서주 후에 등장하는 합창은 선언적이고 서사적이다. 가사 자체가 가진 산문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가사의 각 부분이 갖는 찬미, 고백, 탄원 등 내용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지만, 서사적이고 산문적인 특징은 일관되어있다. '복을 받으시어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테 데움'의 첫 부분을 재연함으로써 두 성가의 주제적 통일성을 이룩한다.

### 안토닌 드보르작: 테 데움 Antonín Dvořák: Te Deum, Op. 103

<신세계 교향곡>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1841~1904)은 사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 등 수많은 가곡과 <루살카> 등 10곡의 오페라, 그리고 <슬픈 성모> 등 규모 있는 성가곡도 여럿 작곡하는 등 목소리에 큰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가 브람스의 인정을 받은 곡도 성악곡인 <모라비아 이중창>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오늘 연주되는 <테 데움>은 드보르작의 세련된 음향과 토속적 정취, 그리고 무게감 있는 텍스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음악적 시나리오 또한 한시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특히 <테 데움>은 1892년 9월 27일에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작곡한 마지막 곡이었다. 드보르작을 아메리카 내셔널 콘서바토리의 원장

으로 임명하여 미국으로 초대된 지네트 서버 부인은 그에게 콜럼버스 아메리카 발견 4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작품을 미리 위촉했고, 가사로 사용할 드레이크의 시 '아메리카의 깃발'을 보냈다. 하지만 가사가 원하는 일정에 도착하지 않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테 데움>(1892)을 대신 작곡했고, 10월 21일에 작곡자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그런만큼 <테 데움>은 드보르작이 미국의 관객을 염두에 두고 작곡한 첫 작품이었다. 체코 시골의 비스카 별장에서 작곡했음에도 익숙한 토속적 뉘앙스와 함께 단순하고 소박한 선율과 5음음계로 분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합창에 적용되어있으며, 독창은 서정적이고 세련된 아리아로 작곡되었다. 전체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합창 교향곡과 유사하다는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드보르작이 '테 데움'의 가사를 전통과 달리 독특하게 나눈 것도 다악장 구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전 악장은 씬 없이 연주되며, 4악장 마지막에 '베네딕투스'를 추가하여 코다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1악장**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전령의 신호와 같은 팀파니의 빠른 연타로 이목을 한순간에 주목시킨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전원의 총곡 같은 선율이 등장한다. 오히려 보헤미아 전원의 '테 데움'이라고 설정하면 신선하고 흥미롭다. 힘찬 합창에 이어 소프라노 솔로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거룩'을 부른다. 그 사이에 목관악기의 목가적인 응답은 숲속의 새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다. 다시 첫 주제가 등장하여 합창과 관현악이 웅장하게 마친다.

**2악장** '영광의 왕이신 당신이여'. 천지를 뒤흔드는 금관의 팡파르 후 베이스가 영광의 왕을 선포한다. 그러다 곧 서정적인 아리아로 전환한다. 그리고 여성 합창이 조용히 구원의 소원으로 응답한다. 바이올린의 고음 선율이 5음음계로 되어있어 정서의 무게감을 덜어낸다.

**3악장** '영원한 삶을 주소서'. 비올라의 트레몰로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상기된 표정으로 알토 독창이 시작된다. 5음음계의 간단한 선율이지만 호소력은 매우 강렬하며, 스케르초의 분위기로 이끈다. 이어지는 '백성들을 구하소서'는 시편 부분으로 음악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드보르작은 바로 연결한다. 후반부는 절뚝거리는 리듬으로 '매일 당신을 축복하나이다'를 단선율로 부른다. 점차 멀어지며 생기를 잃고, 처음에 들었던 팀파니의 연타가 조용히 들려온다.

**4악장** '존귀하신 당신'. 소프라노 독창으로 시작하고, 합창이 '자비를 베푸소서'로 조용히 응답한다. 본래 '테 데움'의 가사는 이렇게 소프라노 독창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여기에 '복을 받으시어다'가 추가되어 코다의 역할을 한다. 소프라노와 베이스 이중창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에 모든 관현악과 합창이 합세하여 '알렐루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마친다.

글 |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송주호(음악칼럼니스트)

음악이 갖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와 시대적 의미를 나누기 위해 음악전문지 기고, 프로그램노트 작성, 해설음악회 진행, 공연 기획 등으로 소통을 넓히고 있다. 현재 『객석』, 『SPO』 등 여러 월간지에 글을 쓰고 있으며, (사)화음 이사, 현대음악양상블 '소리' 프로그래머로 공연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담장 넘어 클래식』과 『현대음악 렉처콘서트』(공저) 등이 있다.

# TE DEUM

남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 지휘

국립합창단의 제12대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는 특유의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그리고 정확한 바톤 테크닉으로 대한민국 정상의 합창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도미하여 미국 뉴욕대 합창지휘 석사, 미국 남가주대(USC) 합창지휘 전공으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부산시립, 대구시립, 광주시립, 고양시립, 원주시립, 청주시립, 당진시립, 부천시립, 용인시립 그리고 안산시립 등을 객원 지휘하였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청주시립교향악단, 강릉시립교향악단, 프라하심포니에타,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키에프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교향악단을 협연 지휘하며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아우르는 정확한 해석과 감성이 있는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수원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및 강릉 시립합창단 등 20년 이상 공립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직전 이사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로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미국 Yale Univ., Westminster Choir College, George Mason Univ., Univ. of Wisconsin, Colorado State Univ., 독일 Köln 국립음대, 이탈리아 Parma 국립음악원, 스위스 Lausanne 국립음대 등 세계 유수의 음악대학 초청으로 합창

지휘 마스터클래스 그리고 합창 세미나 강의를 통해 한국 합창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제12대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여 국민들에게 감동과 위로, 희망을 전하는 지휘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 합창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립합창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기대해 본다.

### 민인기 단장 겸 예술감독



남만주 제공

## 국립합창단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에 창단된 전문 합창단으로서 고(故) 나영수 초대 단장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음악의 거장들(나영수, 백덕윤, 오세종, 염진섭, 김명엽, 이상훈, 구천, 윤의중)과 함께 지난 50년간 합창음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왔다. 국립합창단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 합창단으로 200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 단체로 독립,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하여 매년 4회의 정기공연과 60여 회의 기획공연, 지역공연, 해외공연, 외부출연, 공공 행사 등 다양한 성격의 공연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합창단은 중세음악부터 현대음악, 그리고 창작음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주요 합창 명작품 및 한국 가곡, 민요, 영화음악, 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합창음악을 폭넓게 소화해 내고 있다. 더불어 한국 고유 합창 작품 개발 및 보급, 한국적 특성을 살린 창법, 해석법의 정립 등에 힘을 기울여 합창음악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물론 합창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창작곡 발굴에 있어서는 대규모 칸타타 위촉 및 소품 창작곡 공모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창작 품들을 발굴하는 취지의 프로젝트 등으로 한국합창음악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제12대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민인기 지휘자가 임명되어 음악적 사명과 예술적 비전을 균형 있게 구현해나가며, 합창의 대중화 및 합창음악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우수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최고 수준의 연주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등 한국합창의 세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오사카 더 심포니 홀과 교토 콘서트홀에서 재팬 센쥬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레퀴엠 및 한국·일본의 명가곡들을 선보이며 교민을 비롯한 현지 일본인 관객들의 환호 속에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50년간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국립합창단은 명실상부 최고의 합창단으로 성장·도약하며 향후 50년에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립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임세경 / 소프라노**

-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솔리스트 전문 연주자 과정 졸업
- ▶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영국 BBC 콩쿠르 등 입상
- ▶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오페라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데뷔
- ▶ 빈 슈타츠오페라 극장, 라 스칼라 극장, 베로나 야외극장 등 주요 유럽 극장에서 활동
- ▶ 2015년 베로나 야외극장 오페라 <아이다> 102년 축제 역사상 한국인 최초 주역
- ▶ 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김방술 / 소프라노**

-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 미국 뉴욕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
- ▶ 줄리아드 오페라 센터 단원 역임
- ▶ 뉴욕 퀸즈 오페라 콩쿠르 1위, 메트로 폴리탄 오페라 지역 우승, 리더크란츠-베리스모 오페라 콩쿠르, 중앙 콩쿠르 입상
- ▶ CD "Amazing grace" 발매, "성악인의 영어딕션" 저자
- ▶ 현)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울산 싱어즈 오페라단 대표



**이아경 / 메조소프라노**

-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전체 수석 졸업 및 동 대학원 졸업
- ▶ 이탈리아 비오티 고등음악원,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아 졸업
- ▶ 한국인 최초 제34회 벨리니 국제 콩쿠르 단독 1위 및 알카모, 마리오 델 모나코, 발세지아 무지카, 벨루티,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등 6개의 국제 콩쿠르 단독 1위
- ▶ 조수미 & 위너스 전국 순회 연주, 다니엘 바렌보임, 정명훈, 시송 등과 합창 교향곡 협연, 2011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여자 주역상 수상
- ▶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국원중 / 테너**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 비엔나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오페라과 및 리트·오라토리오과 졸업
- ▶ 스위스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프랑스 마르세유 국제 오페라 콩쿠르 대상, KBS 콩쿠르 우승, 부산 고태국 콩쿠르 대상
- ▶ 스위스 St. Moritz 오페라 페스티벌, 오스트리아 Kufstein 오페레타 페스티벌, 독일 Regensburg 시립극장, 대한민국 국립오페라단 주역 가수
- ▶ 현) 수원대학교 음악테크놀로지 성악과 특임교수



**양준모 / 바리톤**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 ▶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 독일 ARD 성악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수상, 독일 SWR 방송국 주최 데뷔 콩쿠르 1위, 뉘른베르크 마이스터징어 국제 콩쿠르 2위 및 청중상·최고의 바그너상 수상
- ▶ 202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23 대구오페라어워즈 남자 주역상 수상, 2024 국립오페라단어워즈 남자 주역상 수상
- ▶ 현) 국악방송 99.1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진행,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부교수



**안대현 / 바리톤**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및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 라이프치히 바그너 재단 국제 콩쿠르, 임링 굿임링 국제 콩쿠르 등 입상 및 가곡상(Liedpreis) 수상
- ▶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레 베토벤홀에서 브람스 <독일 레퀴엠> 솔리스트로 수차례 협연
- ▶ 국립오페라단,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오페라, 서울시오페라단 등에서 주역 출연 및 협연
- ▶ 스키 마사야키와 바흐 b단조 미사 솔리스트 협연
- ▶ 현)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

# TE DEUM

남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 양하영 / 오르간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수석 졸업
-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 과정 졸업(Master)
- ▶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교 졸업(Konzertexamen)
-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콘서바토리 졸업(Spécialisation)
- ▶ 제3회 장천클라이스 오르간 콩쿠르 2위, 제6회 헤르만 슈뢰더 오르간 콩쿠르 1위 없는 3위
- ▶ 2013 Organ without borders 록셈부르크 국제 오르간 콩쿠르 1위 수상
- ▶ 현) 전주기전대학 음악과 교수,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총신콘서바토리 출강

##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 황필주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은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로, 합창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들은 합창 이론과 실기는 물론, 외국어 디션, 무대 매너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합창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함께 갖춰가고 있다. 청년교육단원은 탄탄한 실력과 성숙한 소양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합창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가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소프라노 고윤지 김민지 김수기 김수연 김준혜 김채영 신예원 이예랑 이주희 이혜림 전은총 조예희 한승연
- 알토 김연재 김채민 김한나 김효원 박은경 박지연 신수연 유남정 이은정 이정연 인도연 전예지 조수민
- 테너 김선영 김엘림 박정훈 박태용 신엽 오광석 오민구 이시형 장지웅 장진혁 정상운 한은빈
- 베이스 김보현 김재훈 김찬우 김학승 김효겸 박준영 이민혁 이현석 임채진 정기는 홍선우 황태환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 sihoonkim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한국을 넘어 국제 음악 문화 교류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다. 1985년 한국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출범했으며, 200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단체로 지정되어 관현악-발레-오페라를 아우르는 '극장 오케스트라'로서 음악적 가치를 높였다. 2023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변경되며 한국 교향악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한국 1세대 지휘자 홍연택부터 제7대 예술감독인 다비트 라일란트에 이르기까지 '유연과 참신'이란 정신 아래 폭넓은 레퍼토리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정통 클래식은 물론 영화와 게임, 온라인 공연 등 연 100회 이상의 다채로운 무대로 클래식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오케스트라 최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진출 및 3D 입체 음향 도입과 더불어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으로 클래식 음악 감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래 세대 육성을 통한 클래식 음악의 지속가능성도 모색한다. 연주-작곡-지휘 등 오케스트라의 핵심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하며 클래식 음악 유산의 전승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KNSO국제지휘콩쿠르와 KNSO국제아카데미를 통해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쾨엘리자베스 콩쿠르, 미국작곡가오케스트라(ACO) 등 국제적인 기구와 협력하며 한국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음반으로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데카를 통해 발매한 '브람스 교향곡 1번, 최성환 아리랑 환상곡'(2019)을 발매했고, 2017년 발매한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은 그해 미국 브루크너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하였다.

# TE DEUM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 <테 데움>

단장 겸 예술감독    부지휘자    객원 부지휘자



민인기    김재은    이준

반주자



서미경    김민환

총무



박동석

악보계



이한빛

소프라노



장영숙    박미자    진지영    조윤정    정경임    신영미    김은정    이정미



박송이    \*이은보라 | 파트장    김경하    신연정    김명희    박준원    김현지 | 준단원    김은경 | 준단원

알토



김미경    조연선    김옥선    최윤정    박정민    \*강문선 | 파트장    유송이    사이안



이도희    김해인    이진영    강인선 | 준단원    이해담 | 준단원

## 국립합창단 단원

테너



조정환    윤인하    원종윤    김영욱    문형근    최성철    \*김종갑 | 파트장    박의준



최정현    오영인    지재엽    노동수 | 준단원    조정빈 | 준단원

베이스



김문섭    강명원    주호남    길은배    차광환    박동석    조대현    \*유지훈 | 파트장



함신규    윤병삼 | 준단원    이다윗 | 준단원

사무국장

국동남

경영지원팀

팀장 한상욱  
차장 신현철    대리 박세진

공연사업팀

팀장 이성균  
과장 허보연    대리 유세현  
팀원 최용림    이우림    박지현

홍보마케팅팀

팀장 조화영  
과장 강세미  
팀원 신영호    허준석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 우리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함께 만드는 화음, 국립합창단의 선율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더해주세요.

### 후원회원



- 수석 부회장** 박용섭 두원이에프씨(주) 회장  
**부회장** 김용선 신동아건설(주) 대표  
**이사** 정 경 (사)오페라마예술경영연구소 대표
- NCK Master** 이인정 (주)태인 회장  
**Gold** 구희정 김재우 배영표 이영순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  
**Silver** 강한주 변호사 강한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성우 김수영 김진우 김창윤  
 김현대 회계법인 베울 본부장 박용좌 코리아남성합창단 단장  
 양철중 강동본터치 정형외과 의원 원장 예루살렘찬양대  
 오현방 코리아남성합창단 단원 임 금 임익주 (주)창인상사 대표 재단법인 에덴낙원  
 최세환 월드씨에스(주) 대표 이인성 세움앤나눔(주) 대표 황서웅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홍승빈 (주)허리우드 대표
- NCK Friends** 강혜령 권미영 노석철 박세진 심인숙 이상우 이지애 황선하

### 유료회원



- 코코프렌즈 골드**  
 강명원 김경하 김문섭(가브리엘 찬양대) 김미경 김옥선 문형근 박미자 박정민 사이안 신경필  
 신철호 유지훈 윤인하 이은보라 이정미 이진영 임수영 정윤아 조윤정 주미라
- 코코프렌즈**  
 강문선 강인선 권미영 권혜진 김래산 김무영 김문정 김미희 김서윤 김세경 김수린  
 김여진 김은정 김이제 김임하 김재찬 김주미 김주현 김주흥 김준혜 김진희 김하늘  
 김해인 나영신 노승찬 모성희 박선호 박세진 박소연 박용석 박용좌 백재은 박지인  
 배유진 변경순 서동빈 서정창 서혜림 성영이 송 미 송현중 신혜정 심재은 안성현  
 오정석 원종윤 이도희 이동제 이상직 이상호 이양상 이영을 이에은 이유화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자영 이지수 이진성 이현정 이해연 임성희 임양리 장두환 장예지  
 전가현 전행준 정경임 정은규 정은영 정태준 정향숙 최영금 최지연 최진일 최창기  
 최형선 편정희 함은옥 허승은 홍선표 홍순희 황기은 황수진 황순주

## 지속 가능한 공연 문화를 위한 국립합창단의 약속

국립합창단은 음악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시대를 비추고,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공연 제작물에 친환경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프로그램 북을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을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한 감상 환경을 제공하고자 디지털 프로그램 북(E-Book)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4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202회 정기연주회 <미사 글로리아> 부터는 종이 프로그램 북 없이 디지털 형태로만 프로그램 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공연 문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앞으로도 국립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나누고,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공연 프로그램 북  
E-BOOK 다운로드



고객 만족도 조사



기억이 머무는 가장 아름다운 곳

# 에덴낙원

삶의 마지막을 위한 품격 있는 공간  
새로운 추모 문화의 기준이 되는 에덴낙원메모리얼리조트입니다.



봉안당 / 유수식 자연장



레스토랑 세상의모든아침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카페 티하우스에덴

EDEN PARADISE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49-82

☎ 031-645-9191

🏠 www.edenparadise.co.kr

GIACOMO PUCCINI

국립합창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음악 II

# MESSA di GLORIA

2025.7.4.FRI 19: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국립합창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찬: 명선아트홀  
MYEONGSUN ART HALL

예매: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1668-1352 📞 interpark 티켓 1544-1555



스타인웨이 D-274(함부르크) 2대  
보젠도르퍼 (92 keys) 1대  
\* 2 Steinway D-274 (Hamburg)  
\* 1 Bösendorfer 92 keys



각종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자연속에서 올려퍼지는 아름다운 오픈 스페이스

 명선아트홀  
MYEONGSUN ART HALL  
[www.msarthall.com](http://www.msarthall.com)